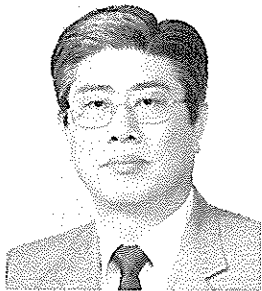


## ■ 인터뷰

# 국가차원 치과 관련 특수진료원 설립 시급 치과계에서 먼저 심각성 인식해야



김 영 수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서울치대 보철과 교수

“구강악안면분야 특수장애자에 대한 심각성을 치과계에서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치과 관련 특수진료원 설립을 적극 추진해가야 합니다.”

김영수 치협 학술담당 부회장은 올해 6월 4일 서울치대병원 임상연구동에서 ‘국립구강악안면특

수장애 수복진료원 설립을 위한 기초자료 발표회’를 갖고 구강악안면 분야에 특수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우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부회장은 작년 7월에는 ‘국립구강악안면특수장애 수복진료원 설립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공식적으로 치과계로부터 치과관련 장애우에 대한 인식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구강악안면분야 특수장애는 언청이 등의 선천성 기형 환자나 구강종양 환자 등의 외과적 처치후의 기형에 대한 장애, 더이상 통상의 방법으로는 의치를 제작할 수 없는 진행성 무치악 증례의 환자 등을 일컫는 것으로서 일반의료분야에서는 특수신체 정신장애자, 나병, 심장병, 백혈병 등에 관해서는 국가가 지원하고 사회단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치과분야는 전염성 질환이나 유전성 질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정도가 적다는 이유로 소외된 계층의 환자들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지난 6월 4일 개최된 ‘국립구강악안면특수장애 수복진료원 설립을 위한 기초자료 발표회’에 따르면 서울치대, 부산치대, 전남치대, 단국치대, 강릉치대, 이대목동병원 등 6개 기관에서 파악한 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간 구강악안면분야의 특수치과질환을 시술 받은 사람이 132명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92년부터 96년까지 서울치대, 단국치대, 부산치대, 조선치대 등 4개 기관에서 파악한 치과관련 특수질환을 시술 받은 사람은 86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부회장은 이러한 기초자료와 관련 “국가를 상대로 국립기관 설립에 대한 의견을 조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초자료 수집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나 구강악안면분야 특수장애자의 수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이와 관련한 정확한 기초자료 수집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부회장은 “그동안 치과분야에 있어서 다량의 악골조직 결손으로 인한 특수질환자가 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불치의 상태로 고통 속에서 여생을 보내야 하는 형편에 처해있다”며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어느 의료기관도 이러한 요구를 사회봉사의 영역에 포함시킬 여력이 없다고 판단, 정부의 특별관리기관, 관련제도 및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부회장은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사업을 협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뿐만 아니라 국가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를 기대하고 있다.